치악산 바라만 보아도 좋다



치악산 바라만 보아도 좋다

발행처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발행일 16년 11월
디자인 김정아, 백소영, 심옥섭
사 진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및 직원 일동
글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 2016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으므로 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목차

치악산에 머무는 시간 프롤로그 04

치악산의 자랑 치악 8경 06

치악산 바로알기

아홉 마리 용과 거북바위 전설 구룡지구 22

커피향이 흐르는 향로봉 황골지구 62

원주를 지켜낸 영원산성 금대지구 72

은혜갚은 꿩의 전선을 간직한 성남지구 86

태종과 운곡 원천석의 이야기 부곡지구 100

강원도의 자랑 치악산 에필로그 111

부록 112

프롤로그

치악산에 머무는 시간

치악산은 기분이 상쾌해지는 아름다운 숲입니다.

정상인 비로봉을 목표로 치악산을 탐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상에 오르는 것 말고도 다른 많은 매력을 품고 있는 치악산은 가벼운 마음으로 힐링을 위해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계절 푸르른 금강소나무들이 살아 숨 쉬는 이 숲은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소나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던 귀한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산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맑은 계곡과 정상에서 바라다보는 산줄기와 저 멀리 내려다보이는 도시의 경치를 떠올립니다. 이 곳 치악산에서도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굽이치며 떨어지는 폭포를 만날 수 있고,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악산에서 오를 수 있는 3개의 봉우리(비로봉, 남대봉, 향로봉)는 저마다 다른 풍경을 담고 있어서 같은 치악산이지만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수많은 문인들과 예술가들도 치악산의 매력에 빠져 아름다운 비경을 가진 계곡과 절경을 이룬 산세를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매월당 김시습 (梅月堂 金時習 1435~1493)은 그림을 그려내듯 치악산의 진면목을 한 편의 시로 멋지게 그려냈습니다.

雉岳山(치악산)

치악산은 우뚝우뚝 푸른 하늘에 솟았고
연기와 노을은 보일 듯 말듯 멀게 만 있네
한줄기 흐르는 봄날의 시냇물에는 이끼가 미끄럽고
천 길 낭떠러지에 핀 진달래꽃은 붉기도 하구나
산봉우리로 난 산길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고
바위에 둘러있는 돌층계에는 저녁 구름이 짙게 깔렸네
푸른 산은 가는 곳 곳 마다 경치가 좋은데
다리에 힘이 다 빠지도록 가도 가도 산은 끝이 없구나



바 라 만　보 아 도　좋 은　원 주 의　자 랑





치악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붉게 물든 비로봉



치악8경

치악산은 바라만보아도 좋은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경관 치악8경은 치악산의 자랑입니다.



강희갑 作



치악산의 주봉이며, 일출이 아름다운 제1경 비로봉 미륵불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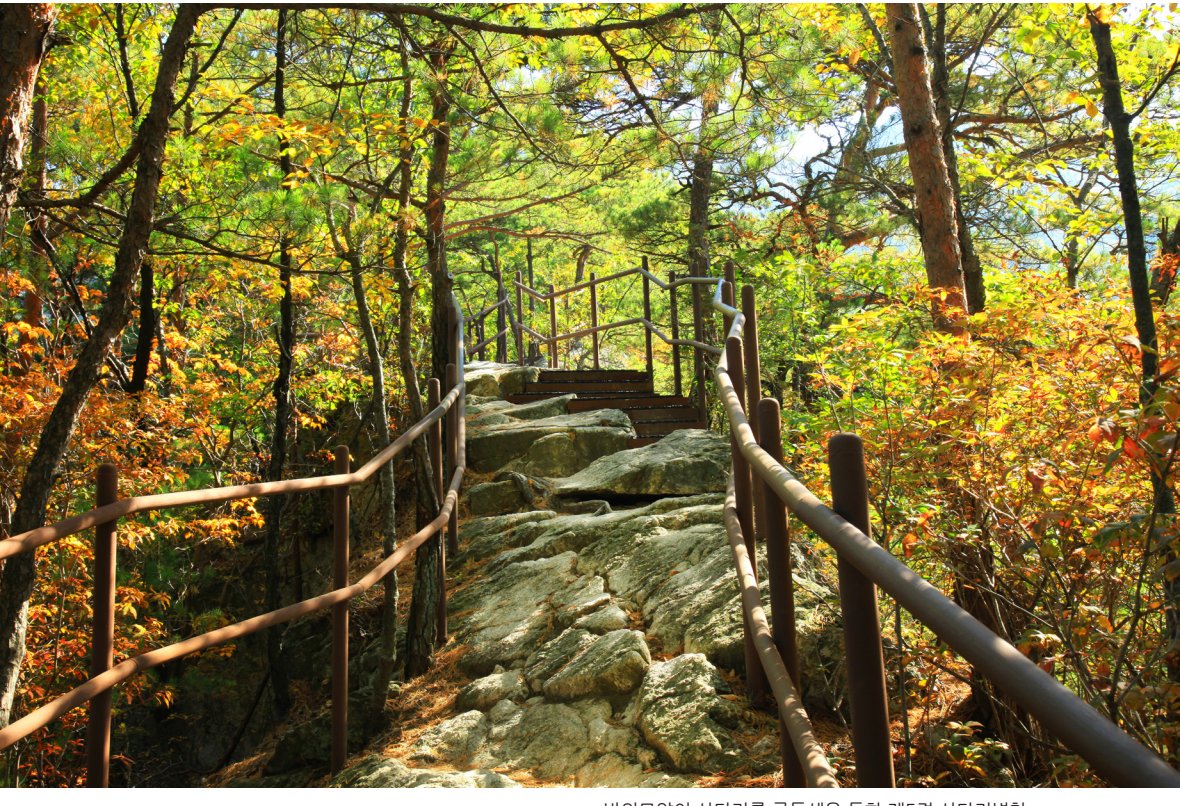
꿩의 보은설화를 간직한 제2경 상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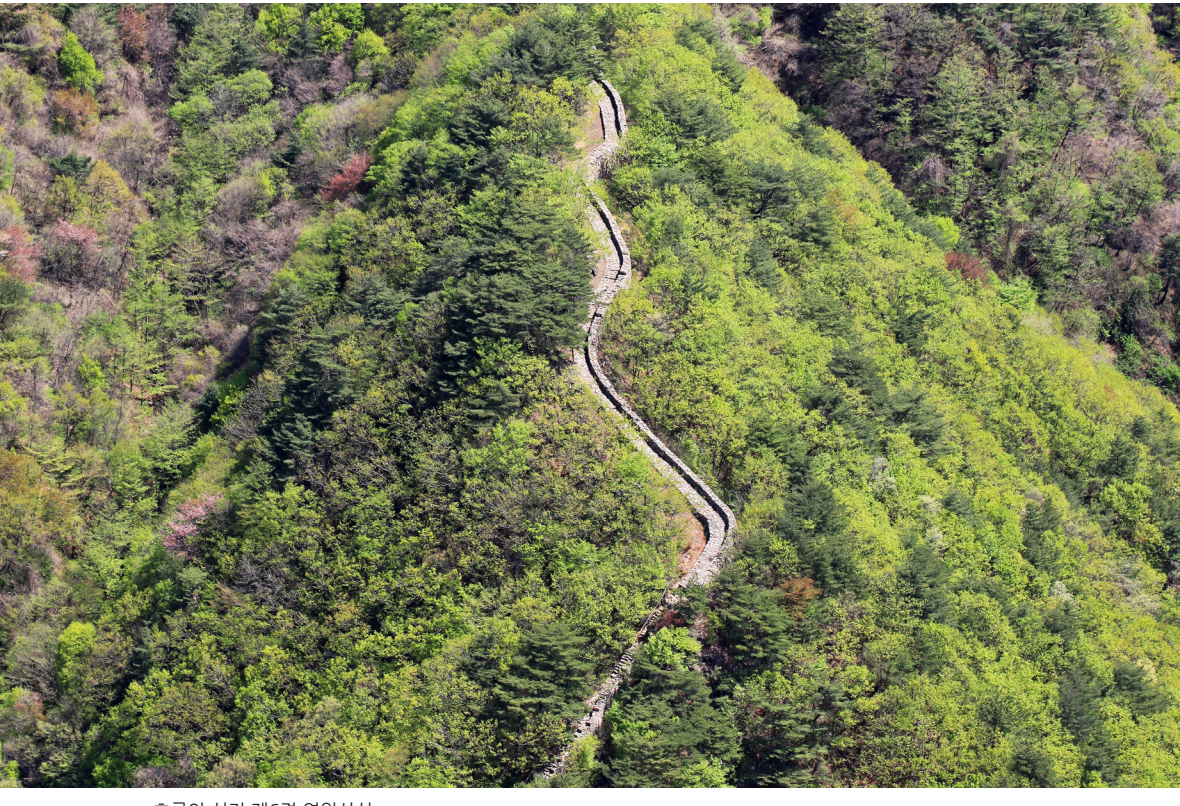
아홉 마리 용의 전설이 깃든 제3경 구룡사



식물의 보고 제4경 성황림



바위모양이 사다리를 곤두세운 듯한 제5경 사다리병창



호국의 성지 제6경 영원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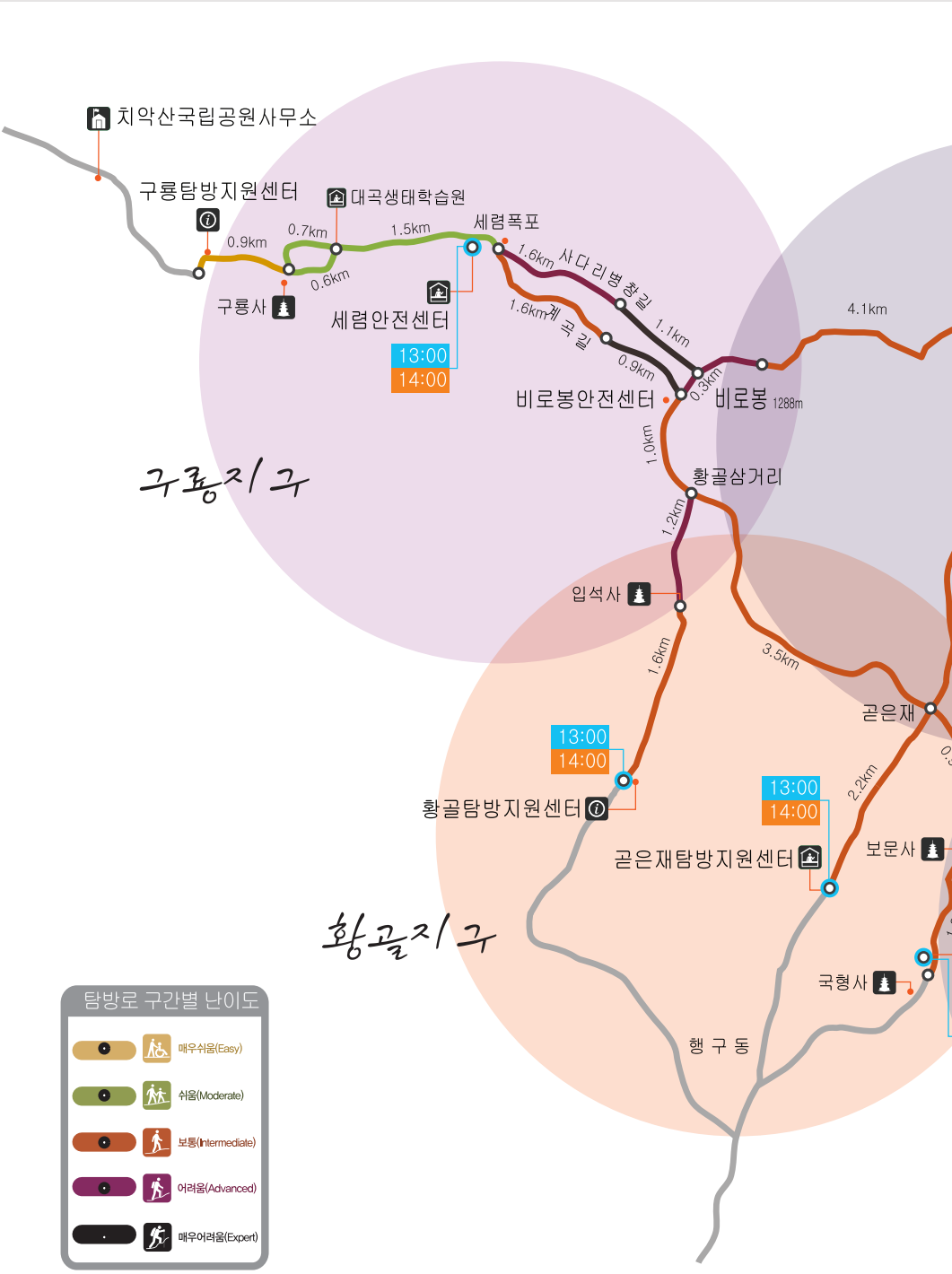


태종 이방원과 그의 스승인 운곡 원천석의 이야기가 깃든 제7경 태종대와 부곡계곡





신라 의상대사가 토굴을 짓고 수도했다고 전해지는 입석사 앞의 '대바위' 제8경 입석대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구룡탐방지원센터
대곡생태학습원
0.9km
0.7km
1.5km
세렴폭포
0.6km
구룡사
세렴안전센터
13:00
14:00
1.6km
사다리병창길
1.1km
1.6km
계곡길
0.9km
4.1km
0.3km
비로봉안전센터
비로봉 1288m
1.0km
황골삼거리
구룡지구
1.2km
입석사
1.6km
3.5km
곧은재
13:00
14:00
황골탐방지원센터
13:00
14:00
2.2km
곧은재탐방지원센터
보문사
황골지구
국형사
행 구 동
탐방로 구간별 난이도
매우쉬움(Easy)
쉬움(Moderate)
보통(Intermediate)
어려움(Advanced)
매우어려움(Expert)


부곡지구
성남지구
금대지구
13:00
14:00
부곡탐방지원센터
0.5km
3.6km
은재
0.9km
향로봉
1042m
0.2km
1.0km
문사
1.3km
행구탐방지원센터
13:00
14:00
2.6km
1.3km
남대봉
1181m
상원사
0.6km
0.4km
0.5km
남대봉갈림길
1.4km
2.4km
영원산성
영원사
2.4km
금대에코힐링캠핑장
금대분소
13:00
14:00
2.5km
13:00
14:00
상원골주차장
2.7km
성남탐방지원센터

아홉 마리용과 거북바위 전설

구룡지구



치악산엔 눈이 번쩍 뜨일만한 경관이 없다. 입이 쩍 벌어질 만한 장관도 없다. 대신 숲의 건강미가 있다. 금강송이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는다. 하늘을 찌를 기세다. 그 사이로 비친 하늘이 예쁘다.

어느 기자가 치악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치악산은 하루에 정상을 갔다 올 수 있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름에 '악(岳)' 자로 알 수 있듯 험한 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색과 치유도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지요.



늘 푸른 금강소나무숲길

금강소나무숲길

하늘을 가르며 곧게 뻗어 있는 금강소나무가 맞아주는 초입에는 '금강소나무숲길'이라고 쓰여 있는 예쁜 아치문이 놓여 있습니다. 구룡 계곡을 따라 나무 데크길과 고운 흙길이 이어지는데, 금강솔빛생태학습원까지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무장애 탐방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치악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숲길 오른편은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왼쪽으로는 치악산의 거대한 바위들이 금강소나무를 품으며, 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아치문을 지나 걷다보면 4마리의 큰 용과 2마리의 거북이가 위엄을 뽐내는 구룡교가 놓여 있고, 작은 거북 바위샘이 탐방객을 맞이합니다.

다리에서 바라보는 맑은 계곡물에는 깨끗한 계곡에서만 산다는 버들치의 움직임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룡교를 지나 금강소나무숲길을 따라가다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는 구룡사, 왼쪽으로는 전나무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천천히 걸으면서 흐르는 계곡 소리,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금강소나무 길 사이사이 햇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황장목을 베지 말라는 표식 황장금표

금강소나무숲길_ 황장금표

금강소나무숲길 아치문 맞은편에서는 '황장금표(黃腸禁標)'를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 일대에서 황장목의 무단벌목을 금한다는 표식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역사적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보면 속이 누렇다고 '황장목'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금강소나무로 불리며, 곧은 성질을 갖고 있는 질 좋은 소나무이기에 예전에는 왕실에 진상하던 특산품이었습니다. 또한 황장금표가 있는 장소로부터 약 100미터 전에 '황장외금표'가 발견 되었는데, 황장금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만일 황장금표를 어기고 황장목을 베어 가다 적발되면 관가로 끌려가 곤장 100대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치악산에서 볼 수 있는 천연기념물 242호 까막딱따구리



또 하나의 비경 구룡계곡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금강소나무 숲 길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탐방로

구룡사

구룡사 방향으로 가게 되면 수령이 200년이 넘는 굵직한 은행나무를 지나 치악산을 대표하는 구룡사(龜龍寺)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찰은 신라의 승려 의상이 668년, 문무왕 8년에 세운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입니다. 창건 당시의 절 이름은 아홉 구(九)자를 쓴 구룡사였다고 합니다. 이름에 얽힌 아홉 마리 용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면서 조선 중기 이후 절 입구에 있는 거북 모양의 바위 때문에 절 이름을 거북 구(龜)자로 바꿔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천왕문을 지나 불이문인 보광루를 거쳐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절에 들어서서 전경을 바라다보면 건너편 전나무숲길과 계곡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이 나타납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구룡사는 그 앞을 듬직하게 지키는 200년 된 은행나무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구룡사를 지나면 눈 먼 용이 숨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는 구룡소와 마주치게 됩니다.



구룡사 대웅전으로 가기위한 제1문 원통문



구룡사 대웅전으로 가기위한 제2문 사천왕문



인간의 선악을 파악하는 사천왕



구룡사 3층 석탑과 멀리 보이는 치악산의 조화



구룡사 옆을 굳건히 지켜온 5월의 은행나무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구룡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나무 향이 그윽하게 느껴지는 전나무숲길

전나무숲길

전나무숲길로 접어들기 전 세월교 앞에서면 전나무 숲 내음이 물씬 납니다. 숲에서 나는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가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향기 따라 걷다보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는 전나무 숲을 마주하게 됩니다. 깊은 숲 속에 들어 온 듯한 기분에 저절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게 되고, 내 쉬며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상쾌한 전나무 향을 느끼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피톤치드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 온 후에 가면 더 깊은 향이 납니다.



치악산의 숨은 주인 다람쥐

운이 좋으면 숨바꼭질 하듯이 전나무 사이사이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무를 타며 다니는 청설모와 다람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전나무와 잣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숲이라 작은 동물들도 좋아 하는 곳입니다. 곳곳에는 지난 밤 다른 동물들이 다녀 간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숨 가쁘고 빨랐던 걸음을 늦추게 하는 전나무 숲길은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보물 '숲'에는 사람들만이 아닌 많은 생물들의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음을 느낄 수 있는 숨결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10과 11월의 전나무숲길에서는 청설모와 다람쥐가 겨울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고요함을 깨는 밝은 아이들 소리



자연놀이에 빠진 아이들

금강솔빛생태학습원

'금강솔빛생태학습원' 이 위치한 대곡은 지난 시절 야영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연 본연의 모습을 많이 되찾아 숲속 쉼터가 되었습니다. 정상 탐방만을 위해 산에 오르기보다 국립공원을 몇 배로 즐기고 쉬어 갈 수 있도록 구렁이 야외방사장, 기억의 언덕, 물두꺼비원 등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곳에는 치악산 이름에 얽혀 있는 '은혜 갚은 꿩'의 전설에도 등장하는 구렁이를 증식, 보존, 연구하고 있는 구렁이 증식장이 있습니다. 사라져 가는 멸종위기 종들을 만날 수 있는 멸종위기식물원, 기억의 언덕 등도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금강솔빛 생태학습원을 한 바퀴 돌고나면 쉬어가고 즐기게 되는 치악산의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등산하기 힘드신 어르신들의 쉼터입니다. 등나무 아래 평상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금강솔빛생태학습원



금강솔빛생태학습원에서 만날 수 있는 소형 미륵불탑

치악산 최고봉인 비로봉 정상에 올라서면 만나게 되는 세 개의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은 비로봉의 꼭대기에 우뚝 솟아 있어 원주 시내에서도 치악산 방향을 바라보면 저 멀리 솟은 탑의 윤곽을 볼 수 있지만, 금강솔빛생태학습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신탑, 용왕탑, 칠성탑을 조금은 작은 형태이지만 정상의 탑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멸종위기식물원에 핀 꽃과 잠자리



구렁이를 관찰하고 있는 아이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 금강솔빛생태학습원

화전민 터

화전민은 옛날에 땅도 없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고 불을 놓아 밭이나 논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곳 치악산에도 산 끝자락마다 그런 화전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화전민들은 산에서 자라고 있는 많은 나무들을 이용해 집을 짓고, 산나물, 약초, 열매 등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나무를 이용해 숯을 만들어 팔기도 했는데, 그 시절 숯은 비교적 수입이 괜찮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전민이 살았던 곳곳에는 숯 가마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처럼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만들어 살았던 흔적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터를 복원하였고, 주변은 자연적으로 회복되어 많은 동식물들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단순히 자연의 감상이 아닌 화전민들의 삶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 화전민의 삶의 터전

세렴폭포

금강솔빛생태학습원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오르다 보면 세렴폭포에 다다릅니다. 구룡계곡 따라 걷던 물길을 가로지르는 철제 다리를 앞에 두고 쉬었다 가기도 합니다. 세렴폭포는 길게 떨어지는 폭포라기보다는 2단으로 휘어지며 흐르는 물줄기가 일품인 환상적인 폭포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두 갈래의 산 물줄기가 만나며 풍요로워 지는 구룡계곡의 시작인 셈이지요. 이곳에서부터 치악산의 험한 산길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다시 길이 나누어지는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한쪽은 계단이 보이는 사다리병창길이고, 다른 한쪽은 계곡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길 모두 비로봉 정상을 향해 갈 수 있는 탐방로입니다. 한 쪽 길을 선택해서 정상에 오르게 되면 하산할 때는 다른 한쪽 길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비가 오고 난 후의 폭포와 평상시의 폭포의 모습이 다릅니다. 사실은 가늘 세(細)자를 써서 세렴폭포가 되었습니다. 미리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세렴폭포

사다리병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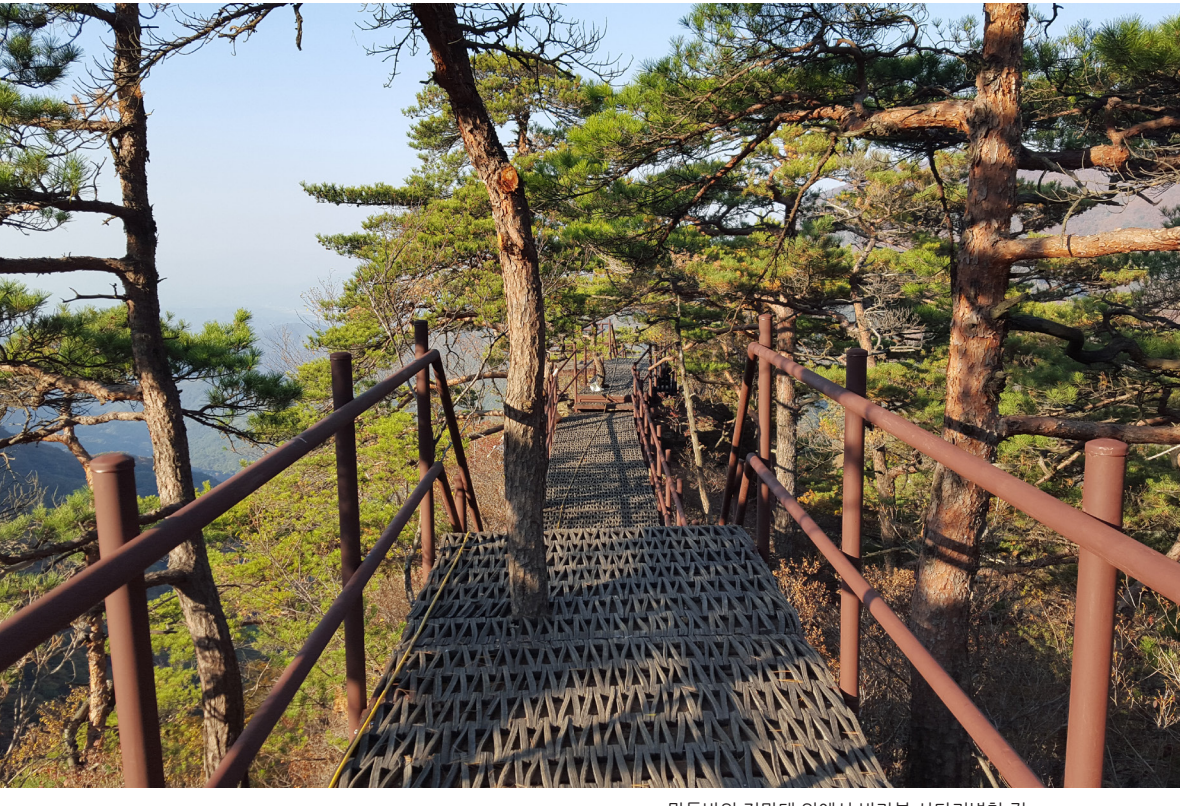
사다리병창길의 '병창'이란 절벽을 뜻하는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오르다 보면 암벽들이 사다리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초입부터 가파른 계단으로 시작하여 계속되는 오르막에 숨을 고르다 보면 전망이 탁 트인 비로봉을 만나게 됩니다.

계곡길도 가파르기는 비슷합니다. 다만 곧게 솟은 큰 바위가 아니라 많은 돌과 나무들이 곳곳에 있는데, 산에 둘러 싸여 있는 느낌을 받게 해 줍니다.

각각의 길로 접어들어서 약 1시간 30분 정도 경관에 취해 흙과 돌을 밟아가는 재미에 산행하다보면 어느새 비로봉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길을 통해 비로봉을 오르내리고 나면 그제서야 치악산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사다리병창길은 다른 탐방로에 비해 사방이 탁 트여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말등바위 전망대 위에서 바라본 사다리병창 길



비로봉 미륵불탑 사이로 보이는 원주시 전망

비로봉

치악산 비로봉에는 세 개의 큰 돌탑이 있습니다. 1962년, 원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용창중씨가 꿈에서 '삼도(三都)가 보이는 산 정상에 삼도의 돌을 이용해 삼년 안에 세 개의 돌탑을 쌓으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쌓기 시작해 1964년에 완성한 미륵불탑, 그러나 무너져서 다시 쌓기를 반복하며 1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치악산은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에 걸쳐 우뚝 솟아있어서 세 지역의 안녕을 지키는 든든한 탑이 되었습니다.

비로봉에 올라서면 북쪽으로는 학곡리 일대가 보이고, 동남쪽으로는 원통재, 곧은재, 향로봉, 시명봉, 남대봉이 보입니다. 이곳에 올라 보면 치악산이 차령산맥의 줄기로 영서지방의 명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 봉우리인 비로봉은 1,288미터 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치악산은 1,000미터 고도에 달하는 봉우리가 8개가 있는 웅장한 산입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세 개의 미륵불탑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쥐너미재 전망대에서 바라본 원주



푸른 산은 가는 곳 곳 마다 경치가 좋은데
다리에 힘이 다 빠지도록 가도 가도 산은 끝이 없구나
나그네여 쉬어가게나



커피향이 흐르는 향로봉

황골지구



산자락에 커피향이 진동합니다. 카페에 앉아서 앞으로 원주의 야경을 보고 있노라면 뒤로는 치악산 향로봉에서 멋스런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치악산은 여러 곳에서 출발하여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악산 국립공원 황골지구 탐방로가 있습니다. 황골지구 탐방코스는 치악산의 주봉인 비로봉에 오르는 최단거리 코스입니다.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지구보다 거리가 가깝지만 경사도가 있는 코스입니다. 원주 시내와 가까워서 짧은 시간으로 정상까지 오르려는 탐방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등산코스입니다.

입석사와 입석대

입석사는 치악산 국립공원 황골지구에 있는 입석대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로 신라시대에 원효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탑과 근처 암벽에 조각된 마애불좌상을 통해 사찰의 연혁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석사 큰 길로부터 서북 방향으로 약 30m쯤 올라가면 나타나는 입석대라는 대 바위가 있습니다. 큰 바위가 우뚝 서 있는데, 바위 밑이 좁고 위쪽이 넓은 기이한 형상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신기하게 넘어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입석사 너머로 보이는 입석대

입석사 _ 흥양리마애불좌상

입석대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애불좌상은 높이가 1.7m의 석각으로 높이가 3.3m의 암벽에 부조되어 있습니다. 암벽에 생긴 불상을 마애불이라고 합니다. 이 불상은 보전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 광배와 대좌를 모두 갖춘 불상으로 전체적으로 풍만하고 볼륨감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있습니다. 최근에 마애불 좌측하단에 "元祐五年庚午三月(원우오년경오삼월일)" 이라는 글씨가 발견되어 마애불의 조성연대가 1090년(선종7)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곧은재

곧은재는 행구동 관음사 동쪽으로 난 고개를 말합니다. '고든치, 고든재, 고둔치재, 직치' 라고도 하지만, 현재는 고개가 쭉 곧았으므로 '곧은재'라고 불립니다. 횡성군 강림면 부곡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는 횡성과 원주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강림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로 가는 가장 단거리로 치악산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보부상들이 넘어 다녔다는 얘기가 전해지며, 사람들이 오가며 쉬어가는 주막이 있었다는 주막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흥양리마애불좌상



부곡으로 넘어가는 길인 곧은재



원주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향로봉



고즈넉한 보문사의 청석탑

보문사

보문사는 국형사에서 동북쪽으로 향로봉의 서쪽 골짜기인 보문골에 있는 절입니다. 원래 보문사는 신라 경순왕 때 무착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웅전과 요사체는 근래에 중건한 것으로 당시 희귀한 청석탑 부재가 출토되어 오래된 절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행구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여 꼬불꼬불 언덕 길을 따라서 도착하면 보문사는 옆의 빨간 단풍나무와 함께 정말 고즈넉한 사찰의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조용하며 고즈넉한 분위기로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원주를 지켜낸 영원산성

금대지구



혹시 '금시발복'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일을 한 뒤에 이내 좋은 보람으로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돈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한 한 젊은이는 같은 마을의 젊은 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인연으로 돌림병으로 가족을 잃었던 처자는 많은 재물들을 혼자 지킬 수 없으니 함께 살지 않겠느냐고 청하였습니다. 이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하여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모신 곳이 천하의 명당자리여서 우연히 결혼까지 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는데, '금시발복', 즉 모든 게 어떤 일을 한 뒤 좋은 보람으로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 금덩어리를 담은 항아리 세 개를 땅속에 묻어 놓고 지냈다고 하여 이 동네가 금이 묻혀있던 집의 터라고 해서 오늘날 까지도 '금대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금 항아리가 묻혀있다고 전해지는데,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원사

영원사는 후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임진왜란을 겪으며 치열한 격전지로 꼽혔던 영원산성을 수호하기 위해 지은 호국사찰 이었습니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만들었으나 이후에는 폐사가 되었던 적이 있었으며, 1939년에 대웅전을 중심으로 지금의 자리에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1948년 화재로 불에 타서 1971년 다시 절을 세운 것이 오늘날 영원사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영원사(永遠寺)였으나 영원사(鴒一寺)로 사찰 이름에 쓰인 한자가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 부원군이었던 김제남의 손자인 천석, 군석 형제가 누명을 쓰고 화를 피해 이 사찰로 피신하였는데, 형제가 보여준 우애가 두텁고 귀감이 된다고 하여 형제를 뜻하는 '영'자와 형제간의 우애를 뜻하는 '원'자를 사용하였습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사찰 주변으로 꽃들이 만발하니 푸르름 속에서 영원사를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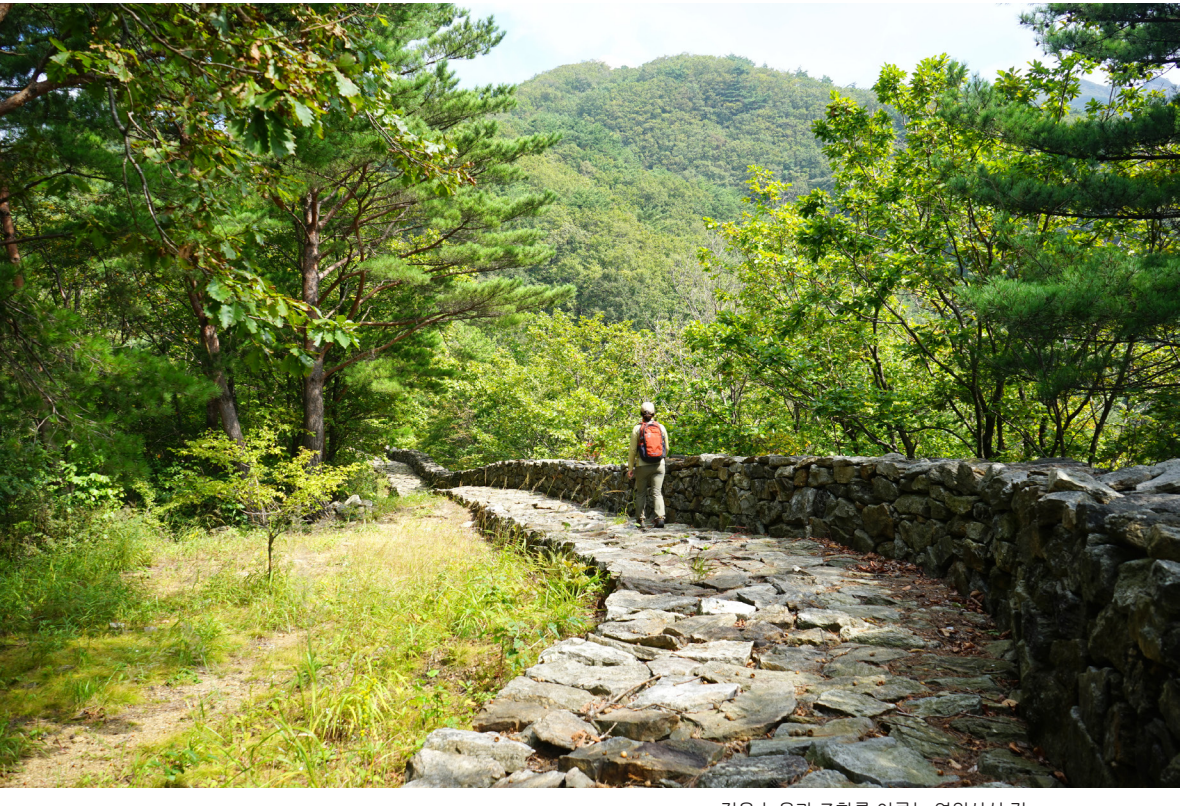
꽃들이 만발한 봄의 영원사

영원산성

전쟁이 났을 때 마다 원주를 수호하였던 산성이 금대지구에 세 곳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해미산성, 금두산성, 그리고 유일하게 현재까지 터가 남아있는 영원산성입니다. 영원산성은 사적 제447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영원산성뿐만 아니라 해미산성과 금두산성이라는 세 개의 산성이 삼각 대형으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세 개의 산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적들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해미산성과 금두산성은 거의 훼손되었으며, 영원산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과 원주시에서는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영원산성을 복원하여 '영원산성 길'을 2016년 10월에 새로 개방하였습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산성 길로 들어서면 옛 산성과 조화를 이룬 자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짙은 녹음과 조화를 이루는 영원산성 길



금대에코힐링캠핑장 입구

금대에코힐링캠핑장

금대에코힐링캠핑장은 영지와 주차장을 분리하여 소음과 매연이 적은 쾌적한 환경에서의 캠핑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안전하면서 상쾌한 환경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캠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 입니다. 48동의 캠프 영지는 피톤치드 함유가 많은 측백나무로 영지를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다른 상쾌한 기분으로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금대에코힐링캠핑장을 지나 탁 트인 남대봉 방향으로 걷다보면 곱게 정원이 만들어져 있는 영원사라는 사찰을 만날 수 있습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금대에코힐링캠핑장 숲속에는 명상 존이 위치하고 있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습니다.




자연, 우리의 미래
Nature, Our Future!



측백나무로 울타리 진 아늑한 캠핑장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캠핑장의 가을



차량위험과 매연 걱정없이 뛰어노는 아이들



한 여름 밤의 금대 콘서트

은혜갚은 꿩과 함께하는

성남지구



마을을 수호하는 성황림을 방문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원을 적어 달기도 합니다. 높은 산자락의 절에는 은혜 갚은 꿩의 전설이 내려옵니다.

치악산 남쪽에 위치한 성남지구에는 꿩의 보은설화가 깃든 상원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성황림이 대표적입니다.

성남리의 북쪽에는 금두산성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성남리의 위치가 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성남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성황림

신림면에 위치한 성황림은 온대활엽수림으로 1962년 숲이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약 30만㎡의 면적에 다양한 목본 식물 및 습지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성황림은 성남리 주민들이 성황신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서 숲 안쪽에는 서낭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낭당 옆에는 높이가 30m에 다다르는 큰 전나무와 10그루의 노목이 있습니다. 성황제는 매년 두 차례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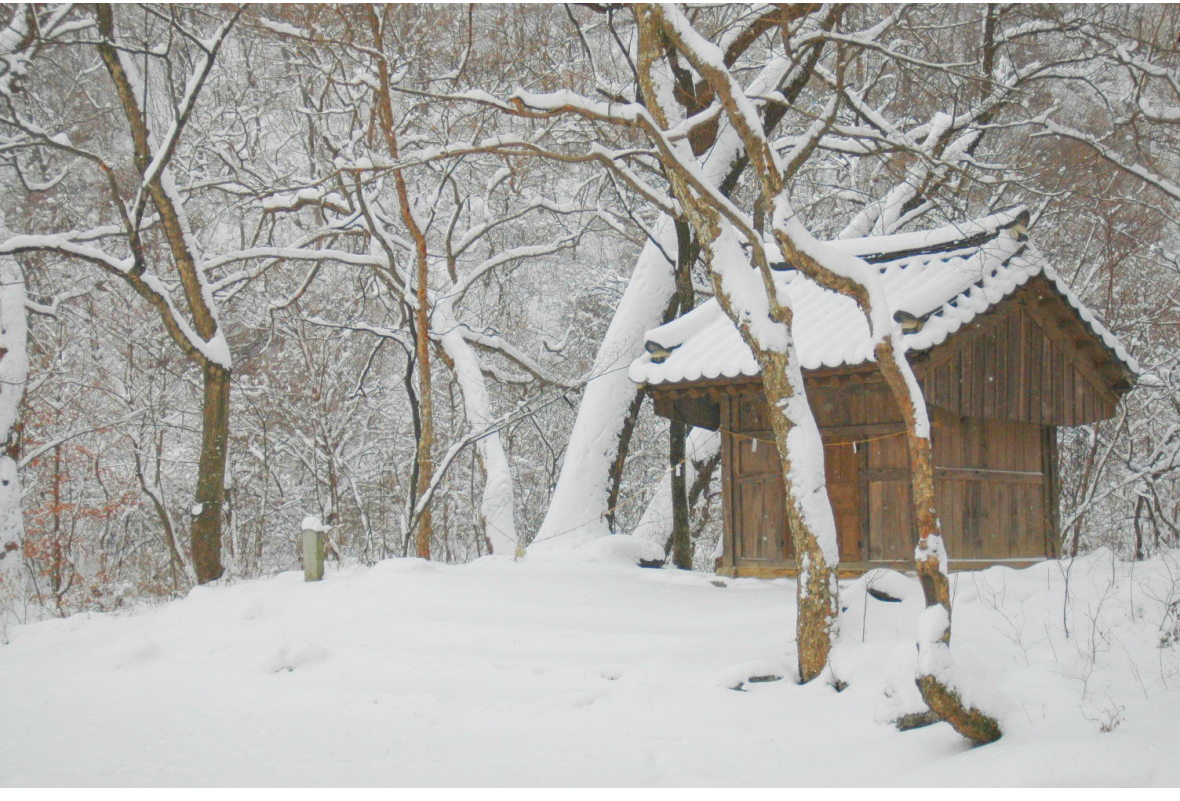
이 숲에는 개암나무, 오갈피나무, 누리장나무 등 온대지방을 대표할 만한 수종이 다양하며, 학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울창한 성황림을 뒤로하고 성남탐방지원센터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면서 남대봉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현재 성황림은 보존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은 제한되어 있고,
학술 및 연구의 목적으로만 일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서낭당에서 성황제를 지내는 모습



눈 덮인 성황당



성황림에 피어난 복수초



절벽사이로 보이는 범종각

상원사

맑은 계곡과 산을 즐기면서 올라가면 상원사라는 사찰을 만나게 됩니다. 상원사는 치악산이라는 산의 이름을 갖게 한 꿩의 보은설화가 전해오는 유서 깊은 고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로도 손꼽히는 곳이며, 성남 마을부터 사찰에 이르기까지 3km구간은 맑은 계곡이 비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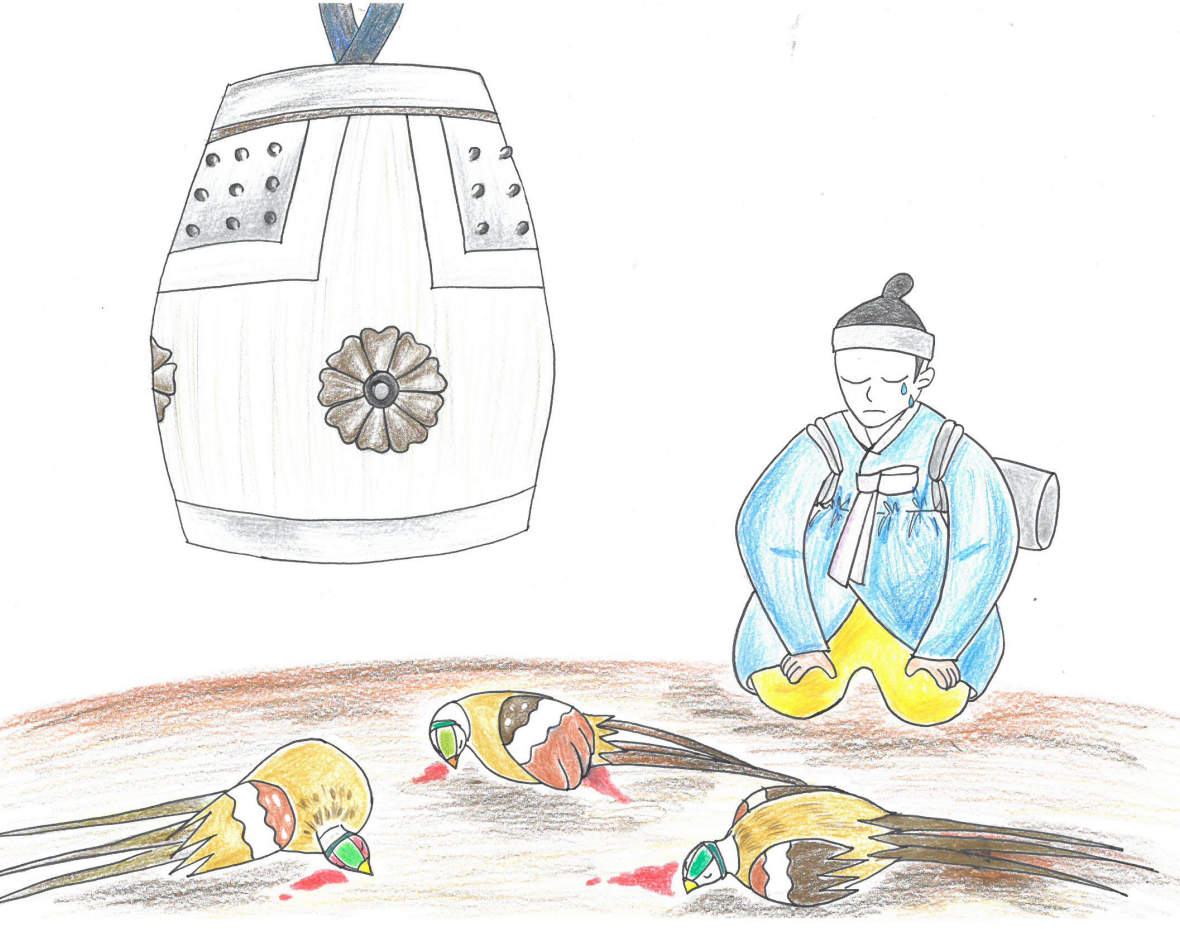
상원사까지의 오르막길을 지나고 능선 길을 따라가면 치악산 봉우리 중 하나인 남대봉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북쪽으로는 치악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쪽으로는 부곡마을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꿩의 보은설화가 깃든 범종각도 한번 들려 보시길 바랍니다.

꿩의 보은설화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위해 치악재를 넘어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삐약'거리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꿩 세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구렁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꿩을 구하기 위해 구렁이를 살생하는 것이라서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가지고 있던 활을 이용하여 구렁이를 죽이게 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하루 묵을 곳을 찾다가 멀리 불빛이 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한 여인네가 하룻밤 묵을 방을 내어주고 따뜻한 저녁식사도 대접해 줬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숨이 콱콱하고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깨어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선비의 몸을 칭칭 감으며, 낮에 죽인 구렁이는 남편 구렁이고, 아내 구렁이가 남편 원수를 갚기 위해 선비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선비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자 남대봉 방향을 가리키며, 꼭대기에 있는 종이 세 번 울리면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종이 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기하게 종이 세 번 울렸고, 구렁이는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종이 울린 곳을 가보니 전날 구해 준 꿩 세 마리가 머리로 종을 치고 종루 바닥에 죽어있었습니다. 꿩의 은혜에 고마움을 느끼고 죽은 꿩들을 묻어주었습니다. 선비는 한양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꿩의 보은설화가 전해지면서 꿩 '치(雉)' 자를 사용하여 치악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상원사 부처님 점안식(2016.10)



상원사지 석탑과 광배





상원사에서 바라본 운무 낀 치악산

태종과 운곡 원천석의 이야기

부곡지구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운곡 원천석 선생이 멸망한 고려 오백 년의 역사를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표현한 시조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조선 건국을 앞두고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고 회유하기 위해 하여가를 짓고, 정몽주는 단심가를 지어 고려의 충신으로 남는다고 회답했습니다. 두 사람 간에 오간 시조는 워낙 유명한데, 이방원의 뛰어난 문장력은 스승 원천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살의 태종 이방원은 각림사에서 기거하며, 운곡 선생을 만났습니다. 훗날 태종은 왕이 되어 혼란한 정치 생활에 벼슬을 버리고, 치악산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있는 운곡 선생을 찾아오게 됩니다.

현재 강림 우체국이 위치하고 있는 각림사 옛터 표석에는 "이곳은 통일신라에 창건되어 고려, 조선을 거쳐 18세기 말까지 번성했던 각림사의 옛터로 조선 3대 임금인 태종이 어린 시절 운곡 원천석 선생께 공부 하였던 곳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각림사는 임진왜란 때 불타 버린 뒤에 폐쇄된 절입니다.

태종대

치악8경중에 하나인 태종대입니다. 이곳에 따로 표지판은 없으나 태종대 옆으로 나있는 조그만 계단을 내려가면 벼랑에 원천석 선생 후손 원상중이 운곡의 행적을 적은 태종대 암각을 볼 수 있습니다.

“운곡 선생의 사적을 암벽에 간략하게 기록했다.
태종대왕이 각림사로부터 운곡 선생을 방문했으나
운곡선생은 피신해 변암으로 들어갔다.
결국 태종대왕은 이곳에 가마를 멈추었다.
대신 운곡선생의 아들에게는 관직을,
여종에게는 상을 주고 가마를 돌려 돌아갔다.
훗날 사람들이 사연을 듣고 ‘태종대’라 이름 지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태종대에 올라 부곡계곡의 비경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기다리던 자리, 태종대

태종대 _ 운곡 원천석

태종 이방원은 각림사에서 공부한 후 18세에 과거급제를 하는데, 역대 임금 중 과거 급제한 유일한 왕이 됩니다.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잡고 왕위에 올라서 스승을 모시려고 여러 차례 신하를 내려 보냈으나 운곡 선생은 끝까지 거절하고 고려의 절의를 지킵니다. 그러자 태종 이방원은 스승을 만나려고 몸소 한양에서 치악산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운곡 선생은 이를 알고 변암으로 피신해 둘의 만남은 어긋납니다.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태종이 머무른 곳에 '주필대'라는 비석을 세우고 정각을 지었는데 그 곳이 태종대입니다.

원주시 행구동 치악산 중턱에 위치한 운곡선생의 묘소는 친구였던 무학대사가 정해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무학대사가 두 개의 묘자리를 놓고 삼대를 이어 정승이 나올 자리와 백대에 걸쳐 후손이 번창할 자리 중에서 택하라고 하자 운곡 선생이 후자를 택해 지금의 자리로 정해 졌는데, 지금도 원 씨 문중은 흔들리지 않는 기개를 지니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치악산 곳곳에 숨어있는 원천석의 흔적을 찾아보시면서 자연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변암에서 바라본 치악산의 모습

노구소

조선의 3번째 왕인 태종이 옛 스승 원천석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안타까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종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원천석은 빨래를 하는 한 노파에게 태종에게 자신이 간 방향과는 반대로 길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에 태종이 와서 길을 묻자 노파는 임금인줄도 모르고 반대 방향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에 노파는 임금을 속였다는 죄책감으로 깊은 계곡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곳을 '노구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구소 근처 마을에는 노파의 넋을 기리기 위한 사당인 '노구사'가 있고 매년 10월 21일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Tip. 자연 더 즐기기

이해를 도와줄 벽화와 노파를 기리는 사당인 노구사도 한번 찾아가보시길 바랍니다.



노파의 죄책감이 서린 노구소



운곡 원천석의 은둔생활지인 고깔모양의 바위, 변암

변암

맑은 계곡과 산을 즐기면서 올라가면 상원사라는 사찰을 만나게 비로봉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는 역사가 담긴 바위가 있습니다. 변암은 운곡 원천석이 은둔생활을 한 바위입니다. 지붕을 얹은 듯한 모습은 마치 고깔의 모습과 같아 고깔 변(弁)자를 씁니다. 그 옛날 운곡 선생은 바위 아래에 거처를 마련하고 돌우물에서 물을 길어 씻고 먹으며, 산에서 나는 고사리와 나무열매로 식사를 연명하면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외로운 생활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그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변암 안쪽 벽면에는 "변암(弁岩)"이란 두 글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에필로그

강원도의 자랑 치악산

'강원도'라는 말은 '강릉'과 '원주'를 합쳐서 부르게 된 말입니다. 그만큼 원주는 강원도의 대표 되는 곳이지요. 이전부터 군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동쪽을 지키는 중요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친 듯하면서도 우직함을 지니고 있는 거대한 치악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치악산은 '치악산 맥'이라고도 불리 울 정도로 많은 고봉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모두 색다른 색과 멋을 품고 제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치악산 국립공원은 다양한 자연의 생물들과 색다른 풍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멋지고, 힘 있는 그리고 강인한 산입니다.

치악산은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몸과 마음을 자연에 맡기고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힘찬 격려가 필요하거나 따뜻한 위로가 간절할 때, 그리고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그리울 때, 치악산의 너른 자연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언제라도 다시 오고 싶고, 여운이 감도는 치악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우직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록

치악산 산행코스



구룡지구

코스1. 구룡탐방지원센터 → 구룡사 → 세렴폭포
→ 사다리병창 → 비로봉 /5.7km(3시간 30분)

코스2. 구룡탐방지원센터 → 구룡사 → 세렴폭포
→ 계곡길 → 비로봉 /5.8km(3시간 30분)

황골지구

코스1. 황골탐방지원센터 → 입석사(입석대) → 비로봉 /4.1km(2시간 30분)

코스2. 곧은재탐방지원센터 → 곧은재 → 향로봉 /3.3km(2시간 30분)

코스3. 행구동탐방지원센터 → 보문사 → 향로봉 /2.5km(2시간)

탐방로 구간별 난이도

- 매우쉬움(Easy)
- 쉬움(Moderate)
- 보통(Intermediate)
- 어려움(Advanced)
- 매우어려움(Expert)

산행시기

동절기	11월 ~ 익년 3월
하절기	4월 ~ 10월

※ 동절기는 05시 하절기는 04시부터 입산 가능

※ 산행시간은 2km에 1시간 소요


N
성남지구
코스1. 성남탐방지원센터 → 상원사 → 남대봉 /5.9km(3시간 30분)
부곡지구
코스1. 탐방지원센터 → 곧은재 → 비로봉 /8.9km(3시간)
코스2. 부곡탐방지원센터 → 큰무레골 → 비로봉 /4.6km(2시간 30분)
13:00
14:00
부곡탐방지원센터
0.5km
3.6km
성남탐방지원센터
2.7km
13:00
14:00
상원골주차장
2.5km
상원사
남대봉
1181m
1.3km
0.4km
0.6km
남대봉갈림길
곧은재
향로봉
1042m
0.9km
2.6km
0.5km
0.2km
보문사
1.0km
2.4km
1.4km
1.3km
영원산성
행구탐방지원센터
영원사
13:00
14:00
금대에코힐링캠핑장
2.4km
금대분소
13:00
14:00
금대지구
코스1. 금대분소 → 영원사 → 아들바위 → 남대봉
5.4km(2시간 50분)
코스2. 금대분소 → 영원사 → 영원산성길 → 남대봉
5.4km(2시간 20분)

치악산 바라만 보아도 좋다

참고문헌 신종원, 1997,「 강원도의 금표-봉표 」
김의숙·전상국, 1997,「 강원전통문화총서 」
원주시, 2000,「 원주시사 」
치악산, 2005,「 치악산의 역사와 문화자원 」
원주시, 2007,「 원주영원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